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	http://www.motie.go.kr
2018년 7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11.(수) 오전 12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8. 7. 10.(화)	담당부서	(산업부)기계로봇과 (과기정통부)과학기술정책조정과 (방위사업청)기술기획과
담당과장	(산업부)김상모과장(044-203-4310) (과기정통부)한형주과장(02-2110-2720) (방사청)이종주과장(02-2079-6330)	담 당 자	(산업부)김태우서기관(044-203-4313) (과기정통부)이정숙주무관(02-2110-2721) (방사청)조일영사무관(02-2019-6393)

민간과 국방,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

- 산업부 · 과기정통부 · 방사청 한 자리에 모여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, 이하 '산업부'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'과기정통부'), 방위사업청(청장 전제국, 이하 '방사청')과 **민·군기술협력 발전방향**을 논의하고 **부처간 협력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7월 11일(수)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**현장**을 **합동 방문**했다.

○ 이번 방문에는 **민·군기술협력사업* 운영** 부처인 산업부, **과학기술정책 총괄·조정** 부처인 과기정통부, **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**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**가 **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**다.

* 민간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로가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

**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,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, 방사청 획득기획국장

□ 이들 3개 부처는 「**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**」* 시행('14.2) 이래 **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**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**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**에 힘써 왔다.

*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(민·군기술협력사업)

① **민군기술개발사업**(민군겸용기술개발,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, 무기체계 등의 개발, 전력지원 체계개발), ②**기술이전사업** ③**규격표준화사업**, ④**기술정보교류사업**

○ 민·군기술협력은 **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**을 통해 **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(R&D) 자원**을 **효율적**으로 운영하면서 **산업기술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**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, 이스라엘 등 **방산강국**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**민·군융합시스템을 구축**하여 **적극 활용**해오고 있다.

□ 이 날 자리는 **민간 첨단기술의 실증(Test-bed)을 위한 수요**와 전자전(電子戰) 등 미래전(未來戰) 양상에 따른 **최신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수요를 연결**해주는 **민·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**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,

○ 로봇, 무인기 등 **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**를 위해서는 **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**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.

○ 또한,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(ADD)와 입체(3D) 프린터를 활용해서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㈜인스텍을 방문하여 **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(民)과 군(軍)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현장**을 돌아보고 **관계자**들을 **격려**했다.

□ 한편, 이들 3개 부처는 **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***에 참여하고 있는 **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**를 별도 개최하여 현장의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고 **법·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**하는 자리를 마련했다.

* 민·군에서 공통 활용하거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수·군수 부처가 공동기획하여 기술개발하는 사업

○ 방과학연구소(ADD)의 한 연구자는 "국가 연구개발(R&D)와 국방연구개발(R&D)간의 추진절차나 적용규정이 상이하여 상호간 협력에 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,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많다. **국가 연구개발(R&D)와 국방 연구개발 간의 벽을 허무는 법·제도적 장치**와 **인식전환이 필요**하다."라고 말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11 14:13:02

□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“**국가연구개발의 흐름을 전환**해야 한다. **경제는 민간**이, **안보는 군(軍)**이라는 **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서,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**을 위해 **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인 투자**가 필요하다”면서 “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**민군기술협력 정책·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.”**라고 말했다.

□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“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**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 등 공공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이다.**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에 있어서 **민군기술협력은 국방의 첨단화에도 이바지**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□ 방사청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“민·군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**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강화**되어야 한다”면서 “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, 투자를 확대해 **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.**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민군기술협력 합동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
2. 연구자 간담회 참석자
3. 민군기술협력 개발성과 각 1부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부 김태우 서기관(☎ 044-203-4313),과기정통부 이정숙 주무관(☎ 02-2110-2721), 방사청 조일영 사무관(☎ 02-2079-63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민군기술협력 합동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

◈ 민군기술협력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현장 방문 및 연구자 애로사항을 청취, 민군기술협력 발전 방향 논의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제고

□ 추진 개요

○ **(목적)** 민군기술협력 **3개 주무부처** 국장의 **합동 현장방문** 및 **연구자 간담회**를 통해 **민군기술협력 활성화**를 위한 **협력 제고**

○ **(일시/장소)** **‘18. 7. 11.(수)** 12:00～/국방과학연구소(ADD) 등(대전시 소재)

○ **(참석자)** 산업부(시스템산업정책관), 과기정통부(과학기술정책국장), 방사청(획득기획국장)

※ 각 부처 민군기술협력담당관, 과기정통부 국방R&D팀 및 KISTEP, 국방과학연구소 및 민군협력진흥원 관계자,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 연구책임자 등 참관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주요내용

○ **(부처 간담회)**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 인식 및 **발전방향 논의,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강화** 등

○ **(현장방문)** 국방과학연구소* 전시관 관람 및 개발현황 보고, 민군겸용기술 **제작 현장** 참관** 및 **관계자 격려**

* 국방과학연구소 : (1본부) 유도무기 전시관, (5본부) 지상로봇 전시관

** ㈜인스텍 : 4KW급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직접 조형 기술개발(3D 프린터 활용)

○ **(연구자 간담회)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연구현장의 애로사항** 청취,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

* 착용형 상하지근력증강로봇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사업 연구책임자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11 14:13:02

붙임 2 부처연계협력사업 연구자 간담회 참석자 명단

주관기관 (참석자)	사업명	참여부처	사업규모	활용분야
해양선박 플랜트연구소 (김선영 박사)	무인수상정(USV) 기술개발	해수부 (200.0) 방사청 (201.0)	401.0억원 ('11~'19)	민)자율운항관제 및 선박 충돌회피 군)임무모듈형 플렛폼 설계 및 원격 통제
㈜LIG넥스원 (류재관 팀장) **국과연** (김병운 팀장)	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로봇 기술개발	방사청 (200.0) 소방청 (24.6)	224.6억원 ('15~'20)	민)근력지원, 소방·구조 군)중량물 취급부대
ETRI (박혜숙 실장)	다매체 다중경로 적응적 네트워크 기술개발	과기정통부 (112.5) 방사청 (68.6)	181.1억원 ('17~'20)	민)통신사업망 고도화 군)전략통신 및 M-IoT망 고도화 및 최적화
RF코어 (전종훈 상무)	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	기상청 (51.0) 방사청 (10.0)	61.0억원 ('17~'21)	민)공항난류 측정, 실시간 고층바람 감시 군)전투기 이·착륙 관측
㈜효성 (김성용 부장)	인장강도 6.4GPa 탄성계수 259GPa급 탄소섬유 개발	산업부 (98.0) 방사청 (2.5)	102.5억원 ('17~'22)	민)항공기 및 인공위성 군)유도무기, 전투기 등 초경량 고강도 구조체
국과연 (김용련 부장)	무인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 개발	방사청 (645.0) 산업부 (371.0)	1,016억원 ('19~'24)	민)경량 초내열 합금소재 군)터보팬 엔진 시제개발 및 시험평가
국과연 (서종우 팀장)	공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중빔 안테나 소요기술 개발	방사청 (150.0) 과기정통부 (95.0)	245.0억원 ('19~'22)	민)빔포밍 RF칩 핵심부품 군)다중빔 안테나 소요기술

붙임 3 민군기술협력 개발성과

1. 민과 군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 : 탄소섬유

○ 주관연구기관 : 효성
○ 연구기간/연구개발비 : '07.12~'14.3 / 200억원
○ 주요 성과
- 적용분야 : (민) 풍력블레이드, 헬멧, 자전거
  (군) 전투기 브레이크디스크
- 탄소섬유 원천기술 개발 및 국산화로 해외기술의존 탈피(세계 3번째). '17년 까지 매출 517억원.
- 유도무기 핵심소재의 국산화로 원활한 군수지원 및 궁극적으로는 자주국방 기반 확보
- 2000톤/년 생산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전주에 설립. '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'를 설립하여 기술역량을 갖춘 15개 중소기업이 입주완료, 기술개발 등을 적극지원(연간200억원)



2.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: 고신뢰 RTOS(Real Time OS) 개발

○ 주관연구기관 : MDS테크놀로지
○ 연구기간/연구개발비 : '16.6~'15.6 / 8.1억원
○ 주요 성과
- (K2전차 운용상황) 소프트웨어 제품의 K2전차 무기체계 내장형 컴퓨터 적용
- (외산 RTOS 대체) 무기체계 전 분야의 외산 RTOS 대체적용 제안추진



3. 국방기술의 민간활용 : 비파괴 탐촉자개발

○ 주관연구기관 : 아이블포토닉스
○ 연구기간/연구개발비 : '14.6~'16.6 / 8억(정부출연금)
○ 주요 성과
- 한독상공회의소장상(비즈니스 혁신 부문)
- 국방과학연구소 보유의 '압전 단결정 응용 초음파 센서 기술'을 이전받아, 반도체 비파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기존 상용화된 해외제품보다 우수. '17년 까지 매출 5억원(향후 26억원 추가 전망)
-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자동차 검사용 고성능 비파괴초음파 센서 공동개발 중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11 14:13:02